

[ 종합·해설 ]

# 與의원들 “盧대통령 탈당하라”

## 정동영 전 의장도 ‘정치 불개입’ 요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 대통령의 탈당을 집중 요구한 데 이어 정동영 전 의장도 노 대통령의 ‘정치 불개입’을 요구하는 등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8일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안 처리와 대통령 선거의 중립적 관리를 위해 노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개헌은 애초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의 진정성과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여당에서 탈당하는 것이 어떨까”고 물었다.

민 의원은 또한, 신당이 지역당이 아닌 단일당이냐는 질문에 “지역당이 아닌 통합당이냐”는 질문에 “통합당이냐”고 답했다. “통합당이냐”는 질문에 “통합당이냐”고 답했다. “통합당이냐”는 질문에 “통합당이냐”고 답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진정성 확

보와 향후 대선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조건 없이 탈당해서 중립직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당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중심의 통합은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통합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동영 원내대표도 지난 7일 노 대통령에게, “3월 중 탈당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여기

에 탈당과 의원들도 개헌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명분을 들어 개헌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비노·반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 내외의 이 같은 기류는 바다까지 추락한 지지도를 회복하고 범여권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이후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축소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기업인 150명 등 300명 특별사면 박지원·권노갑 포함... 김우중 제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2월 25일)을 앞두고 12일 단행할 특별사면에는 주로 대·중소 기업인 150여명과 일부 정치인 등 모두 300여명 가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용성 전 부산교통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 김우중 전 대구경북 회장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일부 정치인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관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사면 대상자 선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사면 대상이 확정되는 않았지만,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이 거의 정해졌다”며 “대상은 150여명 가량이고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이 사면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는 첫째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경제인 사면의 원칙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재외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관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 윤승용 홍보수석은 “공정도 부정적 않았다. 아직도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발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김우중은 9일 오전 한영숙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며, 이날 중 법무부에서 특사 대상자를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 /연남뉴스

# 노대통령 ‘손학규 영입론’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을 상대로 열린우리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선후보 영입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개헌특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후보의 자질을 지적하며 영입론에 대해 “영입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8일 “노 대통령이 ‘손 전 지사는 상대

진영의 후보가 아니라,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명백하게 ‘손학규 영입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탈당문제를 대해서 “결정들이 된다면 알아서 비켜서겠다”고 재차 탈당의사를 밝혔다. “물론 물에서 나가는 게 쉽지 않다. 대선후보가 뜨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뒷방에 앉게 되는 것 아니냐”며 탈당 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남뉴스

# “한나라, 햇볕정책 계승해야”

## 손학규 “남북정상회담도 지지 필요”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8일 여권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한나라당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주목된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서대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도 햇볕정책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다. 북한이 계승할 것인데, 계승, 발전시켜 주겠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며 “한나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평화세력으로 거듭날 때만 정권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공약 격인 ‘광개토 통일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주장들이 당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당론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것이 당론”이라고 적극 반박한 뒤 “당장은 비하지만 밀면 문이 켜진다”

며 “당장은 비하지만 밀면 문이 켜진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임에도 햇볕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 입장을 표명해오긴 했으나 이번과 같이 당에 대해 햇볕정책의 선택적 수용을 공식 요구한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손 전 지사의 내부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는데 앞에서 제5차 6차 회담 개최와 맞물려 대북 정책이 대선주자들 간 쟁점으로 떠올라 가능성이 적지않아 보인다.

손 전 지사는 핵 폐기에 더해 ‘자발적 개방’을 해야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전 시장의 이른바 ‘MB 독트린’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상호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권이 추진중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나라당이 적극 지지해줌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하라” 민주당 광주시당 부는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금남지하상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세업체에 차별적인 부당한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 박근혜 지지 외곽조직 발족 유신 반대 운동권 7명도 참여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각계 각종 인사들이 참여하는 외곽조직이 8일 발족했다.

이날 낮 강남 웨딩의 전당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진 ‘한강포럼’은 현재 대 전 의원에 주도한 모임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스포츠계 인사를 망라한 3천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역별 회원이 각각 6대 4 정도라고 포럼측은 밝혔다.

포럼에 참여한 정·관계 인사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 이상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전 청와대 비서관, 김세원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고 포럼측은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전 대표 시절인 71년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벌인 바 유신 반대 운동으로 제적된 학생들의 모임인 ‘71 동지회’ 회원 인사 7명이 참석, 박근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논점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상황 中 문화혁명 때와 유사”

## 한나라 정두언의원 주장



한나라당 정두언(사진) 의원이 8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사회 상황이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영숙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혁명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과거사 캐기, 평가가 이뤄진다. 숙청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난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답변을 통해

“참여정부를 문화혁명과 비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옳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고 문화혁명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또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잘못 해서 중국 사람들을 밟아서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년(上) 제17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모집기간 : 2007년 2월 5일(월) ~ 3월 10일(금)  
 개강일시 : 2007년 3월 10일(금) 09:00, 서울·경기·대구·부산  
 모집대상 : 20세 이상 70세 이하, 고졸 이상 학력 보유자  
 모집인원 : 1단계 과정(선착순 20명), 2·3단계 과정(선착순 10명)  
 수업기간 : 2007년 3월 10일(금) ~ 2007년 6월 23일(토) 4개월, 15주간  
 수업시간 : 주 1회(일요일 10시 ~ 14시) · 오전반(14시 ~ 18시) → 주 1회 수강  
 수강료 : 1~4 단계 각 30만원, 2·3단계 권입비 10만원 별도

■ 접수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6 호반2차상가 2층 (첨단단지)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 수업 및 졸업의 특징  
 · 전문직 공무원, 교사, 교수, 각종 시험 출제위원, 각종 자격시험 출제위원, 각종 자격시험 출제위원, 각종 자격시험 출제위원  
 · 평생직업이 될 수 있음 · 평생직업이 될 수 있음 · 평생직업이 될 수 있음

● 시행 및 주관 :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인준회 ● 후원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사)국어교전문학원

**광주지역본부 062)971-4747, 972-4747, FAX.973-4747 (01)973-4477, 휴.017-610-9393, 017-609-9393**

상무대학 직업전문학교 606-7000 www.sangmoo.or.kr

전액 국비지원 교육생모집 (매월 31만원 지급)

정부위탁훈련(1년)		실업자훈련(6개월)	
▶ 전기용접 (산업설비사용가능)	대기업, 전기 및 전자기계조립, 선박조립 및 수리설비취업가능	▶ 컴퓨터유지관리	컴퓨터(S/W) 및 조립업, 네트워크관리, 유선·무선취업가능
▶ 전기공사	경기·성남권이 주권역, 취업가능(전기공사계 및 빌딩관리(안전관리))	▶ CO2 용접	대기업, 전기 및 전자기계조립, 선박조립 및 수리설비취업가능
▶ 출퇴근카트 (출퇴근용)	일반산업설비 및 설계용역, 전문산업설비, 축명업취업가능	▶ 자동차정비	광주전남지역자동차(S), 정비업 및 제조업체 관련 인력부족취업
▶ 실내건축	리모델링업 및 디자인업, 설계업, 전문산업설비 취업가능	▶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그래피디자인업, 광고사, 기업캐피탈업, 인테리어업 취업가능
▶ 건축시공	전문산업설비 및 건설관리업, 일반산업설비, 건축의정업취업가능	▶ 캐릭터상품개발	광고기획업, 광고사, 캐릭터디자인, 애니메이션제작취업가능

중장비교육 학점은행제

▶ 훈련비 전액 국비무로 ▶ 재학생 운전면허합인  
 ▶ 매월최고 31만원지급 ▶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출퇴근용 20만원, 교통비 5만명, 식비 3만원, 규정복 지급>  
 ▶ 교재 및 실습비 무로 ▶ 방학특별업체 입사 취업알선

★ 제출서류 : 직업훈련생명정서(총합공용지원서), 사진3매, 신분증, 우체국공정사본 ※ 직업훈련생명정서(총합공용지원서) 수교시(10-3013), 10-3013(중)

지역주민들을 위해 단기 무료교육 실시(컴퓨터활용, 자동차정비자격증) 문의 606-7114 943-1212 372-3000

상무장학집은 전문학원

대형 / 트레일러(슈레러) / 렉카 / 1종 · 2종 보통 / 시내연수  
 지게차 / 굴삭기(포크레인) 개인지도 전문

☑️ 최단 4일 교육 후 면허취득 ☑️ 대형 / 트레일러 / 렉카 시험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 ☑️ 3주(월,금,토) 실시  
 취소자도 바로 대형면허 취득가능 ☑️ 셔틀버스 운행  
 학생우대 (각직업학교 및 제휴학원포함) ★ 대형면허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

고·옥! 등록후 확인에 보세외 후회없는 선택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가당바른 면허취득 기회제공" 낭당학원**

**직원 채용**  
 응모자격: 본명,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직급, 직종, 직위  
 접수처: 낭당학원(주) 100-7114 943-1212 372-3000  
 ☑️ 채용처: 낭당학원(주) 100-7114 943-1212 372-3000  
 ☑️ 채용처: 낭당학원(주) 100-7114 943-1212 372-300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효율율의 복수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필름은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나 인양이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나성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